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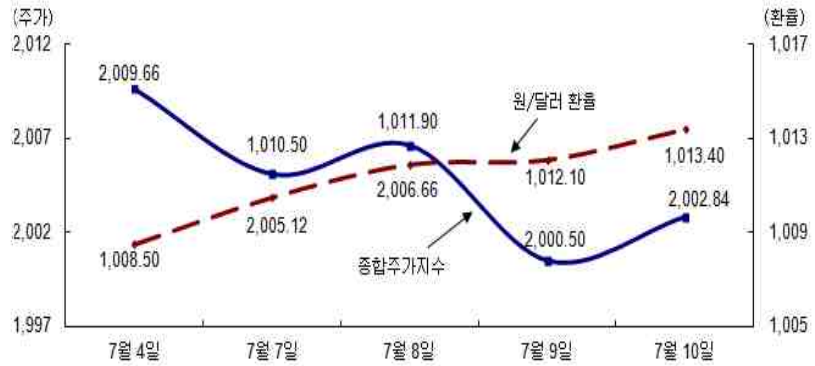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 지역별 특징과 시사점
- 일자리의 양(量)은 충청권, 질(質)은 수도권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4~7.10)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 지역별 특징과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김 동 열 정책연구실장 (2072-6213, dykim@hri.co.kr)
 : 김 민 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Executive Summary

□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 지역별 특징과 시사점 - 일자리 양은 충청권, 질은 수도권

- 지방자치 20년과 지역경제의 재조명 추세 속에서, 지난 5년간 지역별 일자리의 비중과 특징이 어떻게 변했는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분석
- 지난 5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충청권'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해석됨
 - 제주도과 호남권, 수도권도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 여성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이며, 다음은 '강원'임
 -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
- 고임금, 창조산업, 대기업 일자리 등 질적인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의 비중은 수도권 이 가장 높았고, 지난 5년간(2007~2012년) 수도권의 비중은 더 높아졌음
 - 지난 5년간 고임금산업(금융보험, 방송통신 등 5개 산업)의 일자리 중 수도권 이 차지하는 비중은 58.9%이며, 5년 전에 비해 2.0%p 증가했음
 - 창조산업(건축, 예술, ICT기기 등) 일자리도 수도권에 3분의 2 이상 집중되어 있음
 - 2012년 현재 300인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는 수도권에 전체의 58.2%가 몰려 있으며 5년 전(56.6%)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울산이 가장 높음
- 상용직 일자리의 비중은 '울산'이 68.2%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중화학공업 분야의 대기업이 몰려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상용직의 비중은 울산(68.2%), 서울(66.5%), 충남(65.3%), 경남(64.0%) 등이 높음
- 자영업 일자리 비중은 '강원'(26.8%)이 가장 높고, '대구'(24.9%)도 높은 편임
 - 관광 관련 서비스업과 영세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
-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과 지역거점대학의 육성이 필요
 -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규제완화와 외자유치, 지역특화산업 및 거점대학의 육성

< 광역경제권별 일자리 증가율 >

	연평균(2007-2012) 증가율	
	사업체 (%)	종사자 (%)
전국	2.00	3.10
수도권	2.27	3.12
충청권	2.51	4.16
호남권	1.85	3.14
대경권	1.54	2.88
동남권	1.44	2.46
강원권	1.41	3.04
제주권	2.17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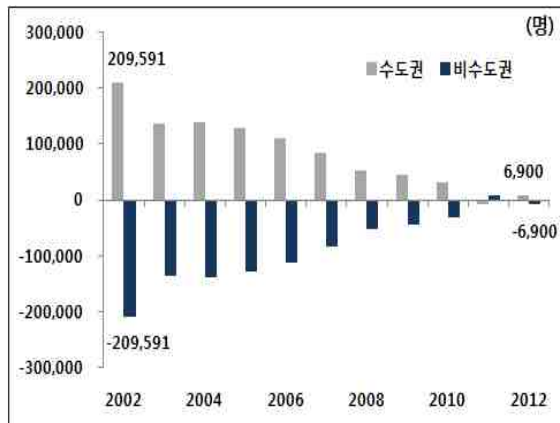
<고임금산업 일자리의 지역별 비중>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2007	2012	2007	2012
전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48.7	51.3	56.9	58.9
충청권	9.3	9.1	9.1	8.9
호남권	10.9	10.3	8.9	8.3
대경권	10.8	10.1	8.4	7.9
동남권	15.8	14.9	13.0	12.4
강원권	3.2	3.0	2.6	2.5
제주권	1.3	1.3	1.0	1.0

1. 지역경제의 재조명¹⁾

- 지방자치 20년²⁾의 결과 非수도권의 생활여건과 생활만족도³⁾가 개선되고 체감경기도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지역경제가 재조명받고 있음
 - 非수도권 인구유출 급감 : 2002년 21만여 명에 달하던 비수도권의 인구 순유출이 2012년에는 7천여 명으로 급감했고, 세종시의 출범도 영향을 미침
 - 非수도권 인구 순유출 : 2002년 209,591명 ⇒ 2012년 6,900명
 - 2013년 말 기준 세종시 입주 정부기관은 31개, 공무원은 1만710명이며, 올해 말에는 37개 기관 소속 12,978명의 공무원이 근무⁴⁾하게 됨
 - 非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증가 : 2003년 이후 非수도권의 GRDP 증가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아, 非수도권의 GRDP 비중은 2012년 53%까지 올라감
 - 2002년 이후 GRDP 연평균 증가율(CAGR) : 수도권 5.3%, 비수도권 6.3%
 - 非수도권의 GRDP 비중 : 2002년 50.6% ⇒ 2012년 52.9%
 - 지방 부동산 시장 호조 :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보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더 크게 상승⁵⁾했으며, 상대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임
 -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큰 폭으로 감소함

<수도권-非수도권의 순유출 인구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 활용 재작성).
 주 : 1. 전입에서 전출을 제외한 '순이동' 기준.
 2.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수도권-非수도권의 GRDP 증가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 활용 재작성).
 주 :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의 합.
 2. 명목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1) 현대경제연구원(2014), '2014년 한국경제 희망요인', 한국경제주평 14-02(통권 573호), pp20-22 참조.
 2) 1995년 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시행된 이후 2014년 6월 민선 6기 단체장이 선출되기까지 20년이 경과함.
 3) 전반적 생활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수도권(27.7%)보다 비수도권(34.1%)이 더 높음(2013년 사회조사).
 4)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12).
 5)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주택시장 전망과 시사점', 경제주평 13-48호(V.565), 2013.11.15. 참조.

- 귀농귀촌 인력 증가 : 농촌으로 귀농하는 가구는 물론 은퇴 이후에 농촌으로 귀촌하는 인력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귀농가구는 2010년 5,405가구에서 2012년 11,220가구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전입가구원 수도 9,597명에서 19,657명으로 2배 이상 증가
- (연구 목적) 위와 같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경제의 재조명 흐름 속에서 지난 5년간(2007~2012년) 대한민국의 일자리 지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5+2' 광역경제권별⁶⁾로 그 특징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 광역경제권별 일자리의 증가 추이, 수도권 쏠림 현상, 일자리의 질적인 변화 등을 아래와 같은 5가지 분류와 8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일자리 자료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⁷⁾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함
 - 지역별 : 일자리 증가 및 비중 / 여성 일자리 비중
 - 산업별 : 고임금산업⁸⁾ 일자리 / 창조산업 일자리 지역별 분포 및 변화
 - 규모별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종사자의 분포 및 변화
 - 종사상지위별 :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의 지역별 분포 및 변화
 - 조직형태별 : 회사법인 사업체와 종사자의 지역별 분포 및 변화

< '5+2' 광역경제권 >



< 일자리의 분석 기준 및 지표 >

기준	지표	
양적 기준	일자리 증가율	
	여성 일자리	여성 취업자
		여성 대표자(CEO)
질적 기준	고임금산업 일자리	
	창조산업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	
	상용직 일자리	
	회사법인 일자리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5+2광역경제권'에 따라,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 제주권)으로 분류함

7) 통계청의 고용동향은 개인을 포함하는 종사자 전체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자체별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체조사는 영리, 비영리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만 보여주지만 지자체별 통계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음.

8) 고용노동부의 산업별 평균임금(별첨1)을 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수도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고임금 업종임. 2013년 통계청의 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월 200만원이고,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되는 월300만원(연간3,600만원) 이상을 고임금업종 일자리로 분류함.

2. 광역경제권별 일자리의 변화 추이와 특징

(1) 양적 기준

- (일자리 증가율) 지난 5년간(2007~2012년)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충청권'이었으며, 수도권 규제의 반사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됨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일자리 추이를 본 결과, 지난 5년간(2007~2012) 사업체 수는 34만개(10.4%, 연평균2.0%), 종사자 수는 263만명(16.5%, 연평균3.1%) 증가했으며, 광역경제권별로는 충청권의 증가가 돋보임
 - 사업체 연평균 증가율 : 전국 2.0%, 충청권 2.51%, 수도권 2.27%, 제주권 2.17%
 - 종사자 연평균 증가율 : 전국 3.1%, 충청권 4.16%, 제주권 3.39%, 수도권 3.12%
- 일자리 비중은 수도권이 50.9%로 가장 크고 5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등 충청권임
 - 충청권의 종사자 비중은 2007년 9.6%에서 2012년 10.1%로, 사업체 비중은 각각 9.9%에서 10.1%로 가장 크게 증가함
- 수도권 규제의 여파로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북, 대전 등 충청권이 반사효과를 얻고 있으며, 제주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해석됨

< 광역경제권별 일자리 증가율 >

	연평균(2007-2012) 증가율	
	사업체 (%)	종사자 (%)
전국	2.00	3.10
수도권	2.27	3.12
충청권	2.51	4.16
호남권	1.85	3.14
대경권	1.54	2.88
동남권	1.44	2.46
강원권	1.41	3.04
제주권	2.17	3.39

< 광역경제권별 일자리 비중 >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2007	2012	2007	2012
전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46.8	47.4	50.8	50.9
충청권	9.9	10.1	9.6	10.1
호남권	10.5	10.4	9.3	9.3
대경권	11.1	10.9	9.8	9.7
동남권	16.7	16.3	16.5	16.0
강원권	3.6	3.5	2.8	2.8
제주권	1.4	1.4	1.1	1.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재계산).

○ (여성 일자리) 여성 취업자 비중은 '제주권'이 가장 높는데, 이는 관광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여성 취업자 비중은 2007년 40.9%에서 2012년 41.9%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권(47.2%)이고 다음은 강원권(44.3%)인데, 음식숙박업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했기 때문

· 또한, 여성 취업자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호남권이며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임

·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등 대도시의 경우 서비스업의 발달로 여성 취업자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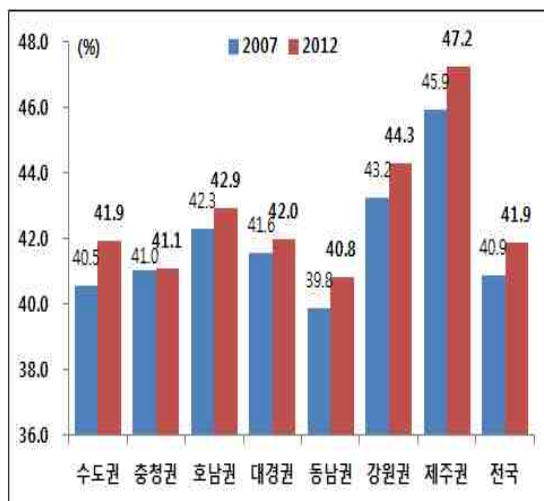
· 반면, 여성 취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35.7%)으로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됨

- 사업체 대표자의 성별로 구분해 본 결과,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권(43.2%)과 강원권(42.9%)이었으며, 동남권(41.2%)도 예상외로 높은 편이었음

· 제주권과 강원권의 경우 여성 대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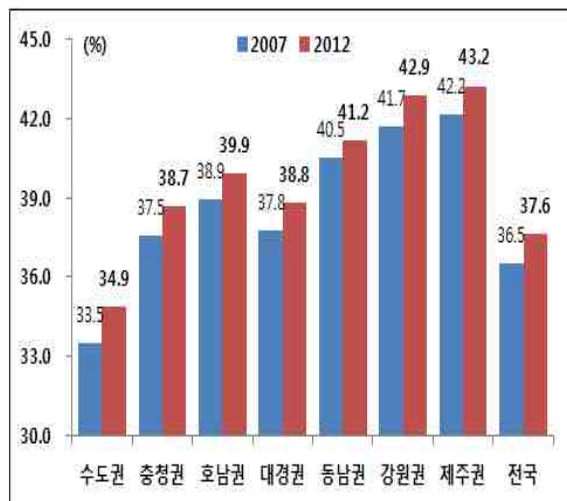
· 동남권은 대규모 중화학공업이 발달하여 남성 종사자는 많지만 남성 대표자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성 대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광역경제권별 여성취업자 비중>



자료: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재계산)
주: 종사자 기준

<권역별 여성대표자 사업체의 비중>



자료: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재계산)
주: 사업체 기준

(2) 질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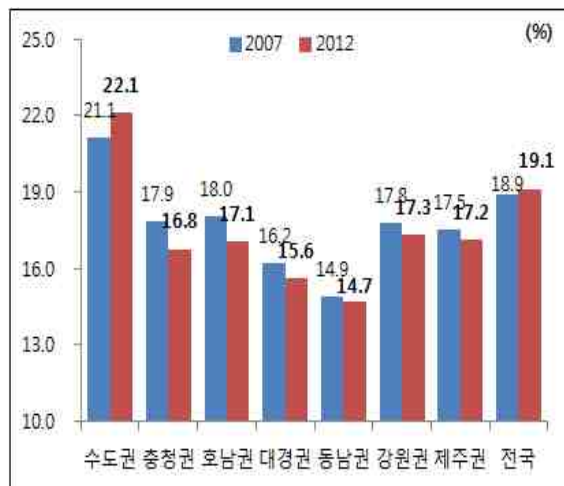
- (고임금산업 일자리) 고임금산업 일자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가장 많고, 비중도 증가 추세에 있음
 - 지난 5년간 고임금산업(금융보험업,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일자리 비중은 증가했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에 가장 많고,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전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음
 - 지난 5년간 고임금 일자리(=100%)의 수도권 비중은 사업체 기준 48.7%에서 2012년 51.3%로, 종사자 기준 56.9%에서 58.9%로 계속 증가하여, 고임금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지난 5년간 고임금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기준 8.7%에서 9.2%로, 종사자 기준 18.9%에서 19.1%로 소폭 증가함
 - 광역권 내에서 고임금산업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권(22.1%)으로 평균(19.1%)보다 높고, 동남권(14.7%), 대경권(15.6%)보다 월등히 높음
 - 전기가스수도업 종사자는 서울, 경기, 경북에 많이 몰려 있음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은 서울과 대전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금융보험업의 일자리 및 비중은 서울과 대전이 높은 편임
 - 방송통신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서울, 대전, 경기 등이 높은 편임

<고임금산업 일자리의 권역별 비중>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2007	2012	2007	2012
전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48.7	51.3	56.9	58.9
충청권	9.3	9.1	9.1	8.9
호남권	10.9	10.3	8.9	8.3
대경권	10.8	10.1	8.4	7.9
동남권	15.8	14.9	13.0	12.4
강원권	3.2	3.0	2.6	2.5
제주권	1.3	1.3	1.0	1.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국의 고임금산업 일자리 합계 = 100.

<고임금산업 일자리의 권역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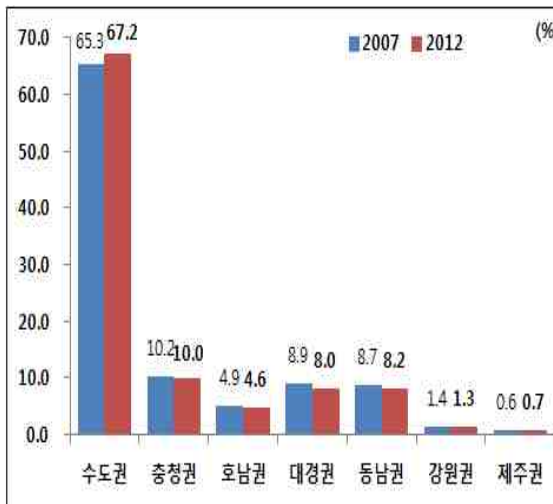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종사자 기준, 각 권역의 전체 일자리 = 100.

9) 2013년 통계청의 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월200만원이고,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되는 월300만원(연간 3,600만원) 이상을 고임금 일자리로 분류했는데, 고용노동부의 산업별 평균임금(별첨1)을 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수도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5개 산업이 이에 해당함.

- (창조산업 일자리) 창조산업¹⁰의 일자리는 2012년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67.2%) 쏠림 현상은 5년 전에 비해 더 심해짐
 - 창조산업(건축, 예술, ICT기기 등)의 광역경제권별 일자리 비중¹¹ 및 추이를 분석해 보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3분의 2 이상(67.2%)이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집중은 5년 전에 비해 더욱 심해지고 있음
 - 2007년도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창조산업 일자리 비중은 65.3%였으나, 2012년에는 67.2%로 더욱 증가하여,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고 있음
 - 2012년 현재 전국 창조산업 일자리(=100%) 가운데 서울시가 33.8%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29.8%로 두 번째 많으며, 경북이 5.4%로 3위를 차지함
 - 각 권역 내에서 창조산업 일자리의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11.6%로서 전국 평균(8.7%)을 게 상회하고 있으며, 강원권(4.0%), 호남권(4.4%), 동남권(4.5%), 제주권(5.2%)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2012년 기준 각 지역의 일자리 중에서 창조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12.1%, 경기도가 11.9%로 월등히 높았고, 이어서 대전이 9.8%, 경북이 9.0%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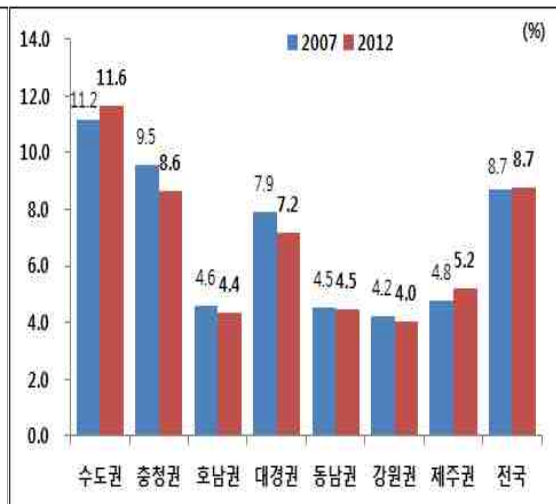
<창조산업 일자리의 권역별 비중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종사자 기준. 전국의 창조산업 일자리 = 100.

<창조산업 일자리의 권역내 비중>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종사자 기준. 각 지역별 전체 일자리 = 100.

10) 현대경제연구원(2013)에 따르면, '창조산업'은 개인이나 집단의 창조성 발현에 바탕을 두며, 지적 재산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되며, ① 광고 ② 건축 ③ 예술 ④ 공예 ⑤ 패션 ⑥ 출판 ⑦ 소프트웨어 등 정보관련 산업 ⑧ 영상 및 오디오 ⑨ 오락 등 ⑩ R&D ⑪ ICT 기기로 분류됨.
 11) 별첨 1의 '창조산업' 정의 및 분류, 별첨 2의 '창조산업' 분류 및 세부 산업별 코드 비교를 참고하기 바람.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산업분류가 일치하지 않아 창조산업의 일자리 비중도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 (대기업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는 수도권에 58.2%가 편중되어 있고 5년 전보다 수도권 비중이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과 '울산'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12년 현재 300인 이상 대규모기업 일자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58.2%가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의 56.6%에 비해 1.6%p 증가함
 - 지난 5년간 수도권으로의 대기업 일자리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16.4%에서 14.6%로 1.8%p나 하락함
 - 지난 5년간 대기업 일자리의 비중이 상승한 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제주권이었으며, 하락한 경제권은 동남권, 대경권이었음
 - 수도권(58.2%) 다음으로는 동남권(울산, 부산, 경남)에 14.6%가 위치함
 -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 비중은 각각 12.8%에서 13.9%로 증가했으며, 4인 이하 기업의 종사자 비중은 2007년 30.6%에서 2012년 28.5%로 감소
 - 각 광역경제권의 일자리 중에서 대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수도권은 2012년 현재 15.9%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14.0%)이 두 번째 높았음. 시도별로는 서울(21.4%), 울산(20.3%), 대전(15.4%), 충남(14.7%)도 높은 지역
 - 각 권역 내에서 대규모 기업 종사자 비중이 평균(13.9%) 이하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제주권(5.6%), 강원권(9.1%), 호남권(10.1%), 대경권(11.5%)임

< 대기업 종사자의 권역별 비중 >

	2007	2012
전국	100.0	100.0
수도권	56.6	58.2
충청권	10.0	10.2
호남권	6.7	6.7
대경권	8.1	8.0
동남권	16.4	14.6
강원권	1.8	1.8
제주권	0.4	0.5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종사자 기준. 전국의 대기업 일자리 = 100.

< 대기업 종사자의 권역내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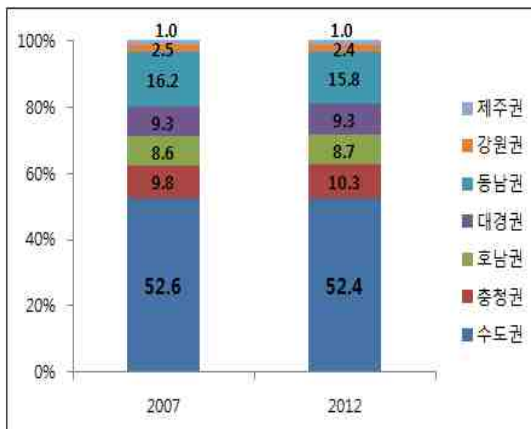
	2007	2012
전국	12.8	13.9
수도권	14.3	15.9
충청권	13.4	14.0
호남권	9.3	10.1
대경권	10.6	11.5
동남권	12.7	12.7
강원권	8.2	9.1
제주권	5.0	5.6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종사자 기준. 각 권역별 전체 일자리 = 100.

- (상용직 일자리) 상용직 일자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68.2%)'이며, 이어서 서울(66.5%)과 충남(65.3%)도 전국 평균(62.4%)보다 높은 편임
 - 상용직 일자리는 수도권에 전체의 52.4%가 몰려 있으며, 다음으로는 동남권(15.8%)과 충청권(10.3%)에 많이 위치해 있음
 - 상용직 일자리의 수도권 비중은 52.4%로 5년 전(52.6%)에 비해 소폭 감소함
 - 전체 종사자 중 상용직 종사자 비중은 2007년 61.8%에서 2012년 62.4%로 증가했으며, 상용직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68.2%)이며, 전국 평균(62.4%)보다 높은 지역은 수도권(서울)과 충청권(충남)임
 - 울산의 경우, 중화학공업 분야의 대기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상용직 비중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52.9%), 제주도(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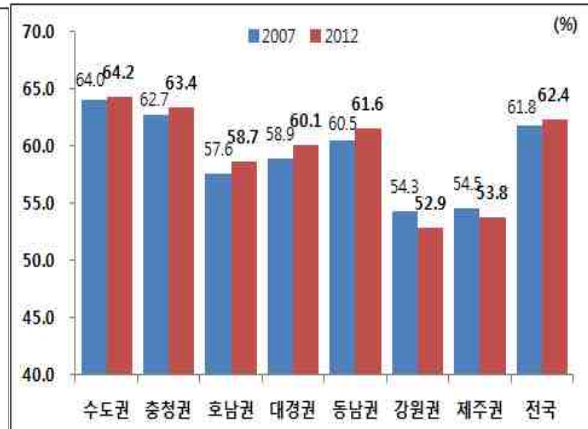
< 상용직 종사자의 권역별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종사자 기준. 전국의 상용직 일자리 = 100.

< 상용직 종사자의 권역내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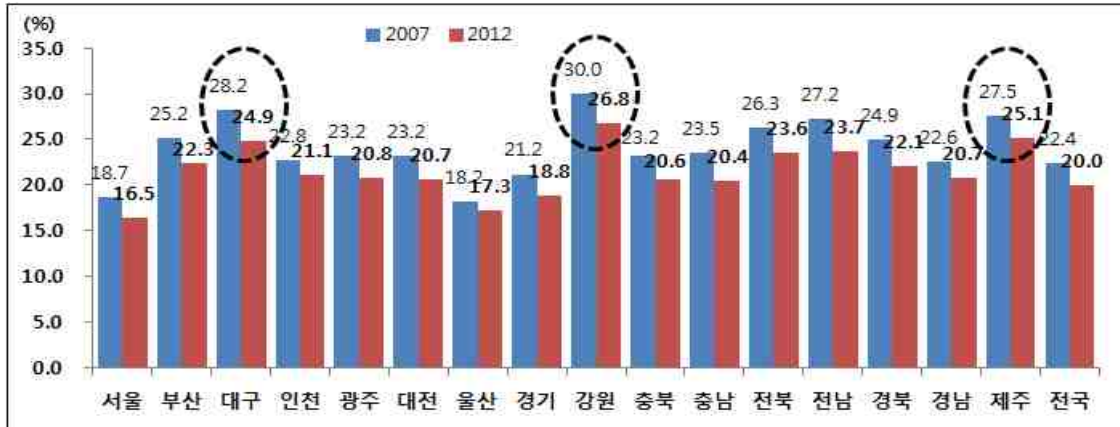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종사자 기준. 각 지역별 전체 일자리 = 100.

- (자영업 일자리) 자영업 일자리의 지역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26.8%)'이며, 이어서 제주(25.1%)와 대구(24.9%)임
 - 전체 종사자 중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2007년 22.4%에서 2012년 20.0%로 감소하여, 자영업의 취약성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지역의 일자리 가운데 자영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26.8%)이며, 전국 평균(20.0%)보다 높은 지역은 제주(25.1%), 대구(24.9%), 전남(23.7%), 전북(23.6%) 등

<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지역별 비교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를 통대로 재계산). / 주: 종사자 기준, 각 지역별 전체 일자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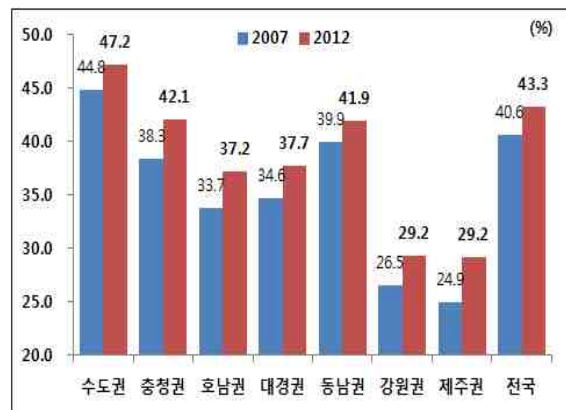
- (회사법인 일자리) 회사법인 일자리는 수도권에 55.5%가 몰려있으나 5년 전에 비하면 그 비중이 소폭 하락했으며, 회사법인 일자리의 비중이 전국 평균(43.3%)보다 높은 곳은 '울산'(52.0%)과 '서울'(51.3%)임
- 5가지 조직형태(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중 회사법인 일자리의 55.1%가 수도권에 있으며 5년 전보다 감소
- 각 광역경제권의 일자리 가운데 회사법인 일자리의 비중이 전국 평균(43.3%)보다 높은 곳은 수도권(47.2%)과 충청권(42.1%)이었음
 - 시도별로는 '울산'(52.0%), '서울'(51.3%)이 높았으며, 충남은 44.7%, 경기도는 43.9%로 전국 평균(43.3%)을 상회함

< 회사법인 종사자의 권역별 비중 >

	2007	2012
전국	100.0	100.0
수도권	56.1	55.5
충청권	9.1	9.8
호남권	7.7	8.0
대경권	8.4	8.4
동남권	16.3	15.5
강원권	1.8	1.9
제주권	0.7	0.8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종사자 기준, 전국의 회사법인 일자리 = 100.

< 회사법인 종사자의 권역내 비중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종사자 기준, 각 지역별 전체 일자리 = 100.

3. 요약 및 시사점

- 지난 5년간(2007~2012년) 충청권의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은 주춤한 상태
 - 지난 5년간 충청권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권, 호남권, 수도권도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 수도권의 종사자 비중은 2007년 50.8%에서 2012년 50.9%로, 사업체 비중은 각각 46.8%에서 47.4%로 증가하여 수도권 비중이 소폭 증가함
-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일자리가 질적으로 우수하고 선호되는 고임금산업 일자리, 창조산업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의 수도권 비중이 가장 높고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함
 - 광역경제권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시도별로는 서울, 경기, 대전, 울산의 일자리 사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임
 -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등 고임금업종 일자리의 비중은 서울과 대전이 높고, 수도권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 창조산업의 일자리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비중 높고 지난 5년간 증가했음
 - 대기업과 상용직 종사자의 비중은 울산과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임
 - 단, 자영업 일자리 비중은 강원, 제주, 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분석 결과 종합 >

기준	지표		높은 지역	낮은 지역	수도권 집중
양적 기준	일자리 증가율		충청권(대전)	부산	-
	여성 일자리	여성 취업자	제주	울산	-
		여성 CEO	울산, 제주, 강원	서울	-
질적 기준	고임금산업 일자리		서울, 대전	제주, 강원	+
	창조산업 일자리		서울, 경기, 대전	전남, 경남, 강원	+
	대기업 일자리		서울, 울산	제주, 강원, 대구, 전북	+
	상용직 일자리		울산, 서울, 충남	제주, 강원	-
	회사법인 일자리		울산, 서울	제주, 강원	-
	자영업 일자리		강원, 제주, 대구	서울, 울산	-

-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각 광역경제권별로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임금산업 일자리, 창조산업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 등 질적으로 우수하고 선호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대기업 본사의 유치, 고부가가치 복합서비스 단지의 조성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지역별로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하여, 국내외 기업이 합작하여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된 규제 완화 노력도 추진해야 함
 - 아울러, 세종시와 지역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연구개발,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수도권의 가족들이 함께 내려와 살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거점대학의 육성,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지역별 거점대학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지역별 경제여건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외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추가로 유치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함
 - 대전지역의 경우 연구개발단지와 카이스트 등 지역거점대학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고 있음

김동열 정책연구실장 (2072-6213, dykim@hri.co.kr)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 별첨1 > 산업별/규모별/학력별/연령별 평균임금 (2012년)

(단위: 만 원)

산업별 평균임금		규모별/학력별/연령별 평균임금	
전체	3,404	전체	3,404
농림어업	3,571	5-9인	2,683
광업	3,438	10-29인	2,994
제조업	3,222	30-99인	3,092
전기,가스,수도업	5,616	100-299인	3,464
환경/폐기물처리	2,908	300-499인	3,980
건설업	3,381	500인 이상	4,992
도소매업	3,323	고졸 이하	2,609
운수업	3,088	전문대졸	2,985
숙박음식업	2,221	대졸	4,233
출판,방송,정보,통신	4,317	대학원졸 이상	6,104
금융보험업	5,506	29세 이하	2,39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14	30-34	3,209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443	35-39	3,757
사업관리 및 사업지원	2,625	40-44	4,007
교육서비스업	3,964	45-49	4,034
보건복지서비스업	2,946	50-54	3,90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2,865	55-59	3,471
협회,기타,개인서비스	2,737	60세 이상	2,57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주: 2012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소속 전일제(Full Time) 상용근로자 기준.

< 별첨2 > 산업별/규모별 일자리 평가 점수

	일자리 점수	4분위 분포(%)			
		나쁜 일자리 (1분위)	중간 일자리 (2,3분위)	좋은 일자리 (4분위)	
전체	50.7	25.0	50.0	25.0	
산업별	농림어업	32.3	76.5	14.7	8.8
	광공업	51.7	20.3	54.9	24.9
	전기/가스 및 통신업	54.3	15.7	54.6	29.6
	건설업	42.9	40.8	47.1	12.1
	도소매/음식숙박업	44.5	37.9	53.0	9.1
	금융 및 부동산업	58.8	9.0	46.9	44.1
	공공서비스업	53.2	21.9	45.9	32.1
사업체 규모별	10인 미만 기업	43.4	38.6	53.1	8.3
	10~299인 기업	50.6	21.6	57.8	20.6
	300인 이상 기업	58.8	10.7	45.2	44.1

자료: 노동연구원(2007).

< 별첨3 > 주요 기관별 창조산업 정의 및 분류

- (창조산업 정의) '창조산업'은 개인이나 집단의 창조성 발현에 바탕을 두며, 지적 재산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되며, 아래와 같은 11개 분야로 분류됨¹²⁾
- 현대경제연구원(2013)에 따르면, 국내 창조산업은 광고, 패션, 소프트웨어, R&D, ICT기기 등 11개 분야로 세분화됨
 - 광고, 건축, 예술, 공예, 패션, 출판, 소프트웨어 등 정보관련 산업, 영상 및 오디오, 오락 등, R&D, ICT 기기의 11개 분야로 구분 가능

< 주요 기관별 창조산업의 개념과 분류 >

기관 및 연구자	창조 산업의 개념	해당 산업
Howkins(2001)	- 예술부터 과학·기술까지의 범위에서 창조적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여 창조경제 기여하는 산업	① 광고 ② 건축 ③ 예술 ④ 공예 ⑤ 디자인 ⑥ 패션 ⑦ 영화 ⑧ 음악 ⑨ 공연예술 ⑩ 출판 ⑪ 소프트웨어 ⑫ 텔레비전·라디오 ⑬ 비디오·컴퓨터 게임
영국문화·미디어·스포츠부 (UK DCMS, 2009)	- 창조성, 기술, 재능에 바탕을 둔 산업과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① 광고 ② 건축 ③ 미술품 및 고미술 ④ 공예 ⑤ 디자인 ⑥ 패션 ⑦ 영화 ⑧ 음악 ⑨ 공연예술 ⑩ 출판 ⑪ 소프트웨어 ⑫ 텔레비전·라디오 ⑬ 비디오·컴퓨터 게임
세계지적재산권협회 (WIPO)	- 저작권을 가진 자료의 창작, 제조, 생산, 방송, 유통과정에서 직·간접으로 관련된 산업을 의미	- 핵심 저작권 산업 - 상호의존적 저작권 산업 - 부문저작권 산업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2008 & 2010)	- 창조산업을 창조성과 지적자본을 사용하여 만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하여 잠재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또 다른 지적자산을 창조할 수 있는 산업	- 전통 - 예술 - 미디어 - 실용적 창조
노무라총합연구소 (野村總合研究所, 2012)	- 시장경쟁력이 가격이 아니라 창조성의 부가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제품, 서비스, 노동으로 구성된 산업	- 패션 - 식(食) - 콘텐츠 - 지역산품 - 주거 - 관광 - 광고, 아트, 디자인
현대경제연구원 (2013)	- 개입과 집단의 창의성 발현에 바탕을 두며, 지적 재산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① 광고 ② 건축 ③ 예술 ④ 공예 ⑤ 패션 ⑥ 출판 ⑦ 소프트웨어 등 정보관련 산업 ⑧ 영상 및 오디오 ⑨ 오락 등 ⑩ R&D ⑪ ICT 기기

12) 현대경제연구원, “창조경제의 성공은 창조산업 육성부터”, 경제주평 13-25 (통권542호), 2013.6.7.

< 별첨4 > 창조산업의 분류 및 세부 분류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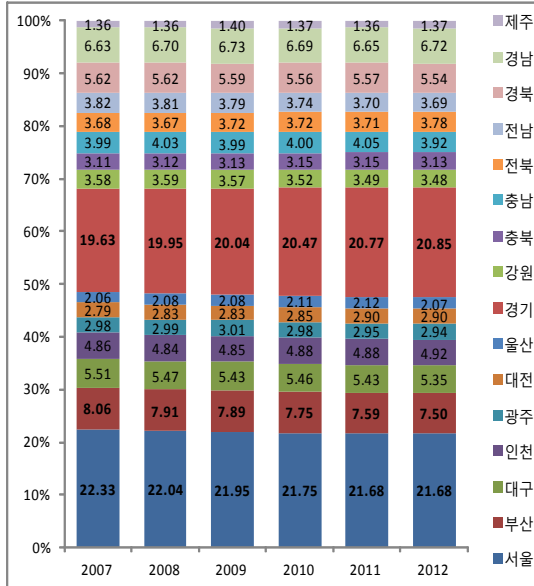
< 창조산업 분류 및 해당 산업 구분 >

분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 분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상 분류
① 광고	광고(363)	광고업(713)
② 건축	건축공학관련서비스(364)	건축기술엔지니어링(721)
③ 예술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390), 국공립 문화서비스(386), 기타 문화서비스(38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901), 도서관 사적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902)
④ 공예	모형 및 장식용품(296), 목제 가구(288), 금속 가구(289) 기타 목제품(119)	가구제조(320), 악기제조(332)
⑤ 패션	시계(273), 귀금속 및 보석(295)	전문디자인(732), 시계 및 시계부품제조(274),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331)
⑥ 출판	출판(385)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581)
⑦ 소프트웨어 등 정보관련 산업	정보서비스(345), 소프트웨어개발공급(366)	소프트웨어개발공급(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620), 자료처리 호스팅(631), 기타 정보서비스(639)
⑧ 영상·오디오	영화제작 및 배급(388),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제작(591),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592), TV방송(602), 라디오방송(601)
⑨ 오락 등	기타 오락서비스(39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912)
⑩ R&D	국공립연구기관(357), 비영리연구기관(358), 산업연구기관(359), 기업내연구개발(360), 기타공학관련서비스(365)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701), 인문사회 연구개발(702), 기타 과학기술서비스(729), 그외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739),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⑪ ICT 기기	TV(256), 음향기기(257), 기타 영상 및 음향기기(258), 유선 통신기기(259), 무선통신단말기(260),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 장비(261), 컴퓨터 및 주변기기(262)	반도체 제조(261), 전자부품제조(262), 컴퓨터 주변장치 제조(263), 통신방송장비제조(264),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265),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266)

주 : () 내는 산업분류번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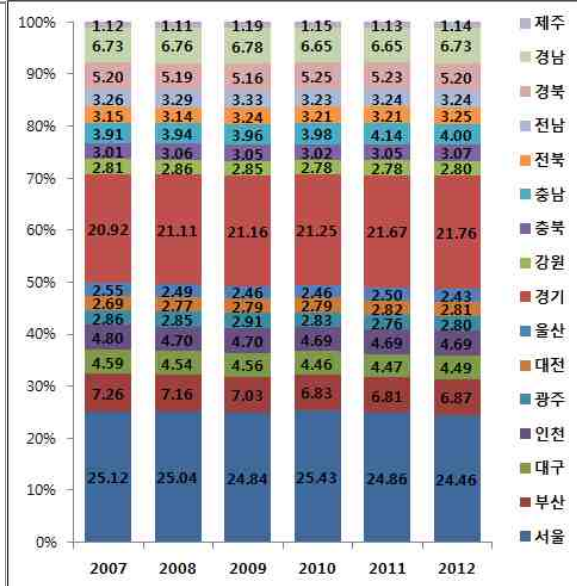
< 별첨5 > 지역별 일자리 통계

< 지역별 사업체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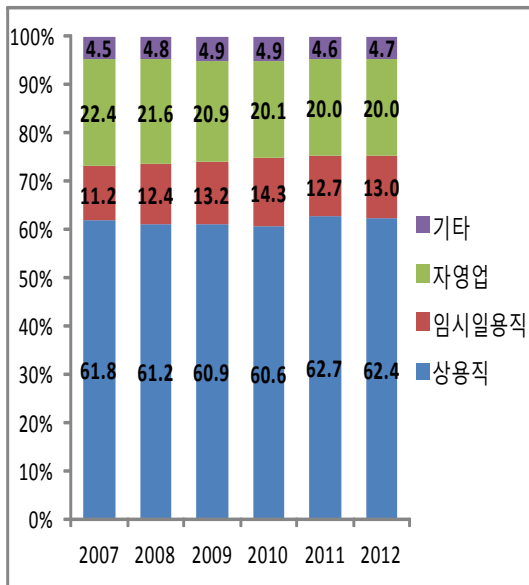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국=100, 2012년은 세종시 제외.

< 지역별 종사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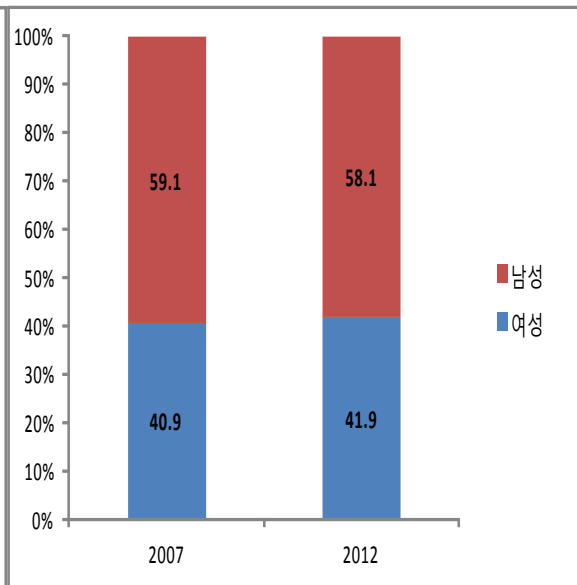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2년은 세종시 제외.

<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비중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국=100, 2012년은 세종시 제외. 종사자 기준

< 성별 종사자 비중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국=100, 2012년은 세종시 제외. 종사자 기준

< 시도별 일자리 증가율 및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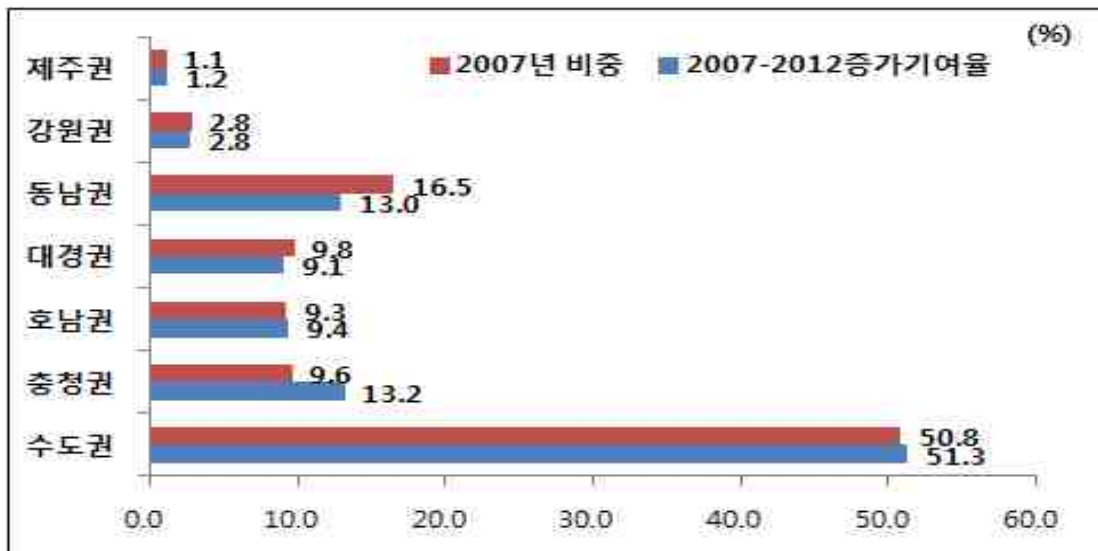
	연평균(2007-2012) 증가율	
	사업체 (%)	종사자 (%)
서울	1.40	2.54
부산	0.54	1.96
대구	1.37	2.64
인천	2.23	2.62
광주	1.75	2.63
대전	2.80	3.94
울산	2.11	2.13
경기	3.24	3.92
강원	1.41	3.04
충북	2.13	3.48
충남	1.65	3.56
전북	2.52	3.72
전남	1.27	3.01
경북	1.70	3.10
경남	2.28	3.11
제주	2.17	3.39
전국	2.00	3.1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주 : 2012년은 세종시 제외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2007	2012	2007	2012
서울	22.33	21.68	25.12	24.46
부산	8.06	7.50	7.26	6.87
대구	5.51	5.35	4.59	4.49
인천	4.86	4.92	4.80	4.69
광주	2.98	2.94	2.86	2.80
대전	2.79	2.90	2.69	2.81
울산	2.06	2.07	2.55	2.43
경기	19.63	20.85	20.92	21.76
강원	3.58	3.48	2.81	2.80
충북	3.11	3.13	3.01	3.07
충남	3.99	3.92	3.91	4.00
전북	3.68	3.78	3.15	3.25
전남	3.82	3.69	3.26	3.24
경북	5.62	5.54	5.20	5.20
경남	6.63	6.72	6.73	6.73
제주	1.36	1.37	1.12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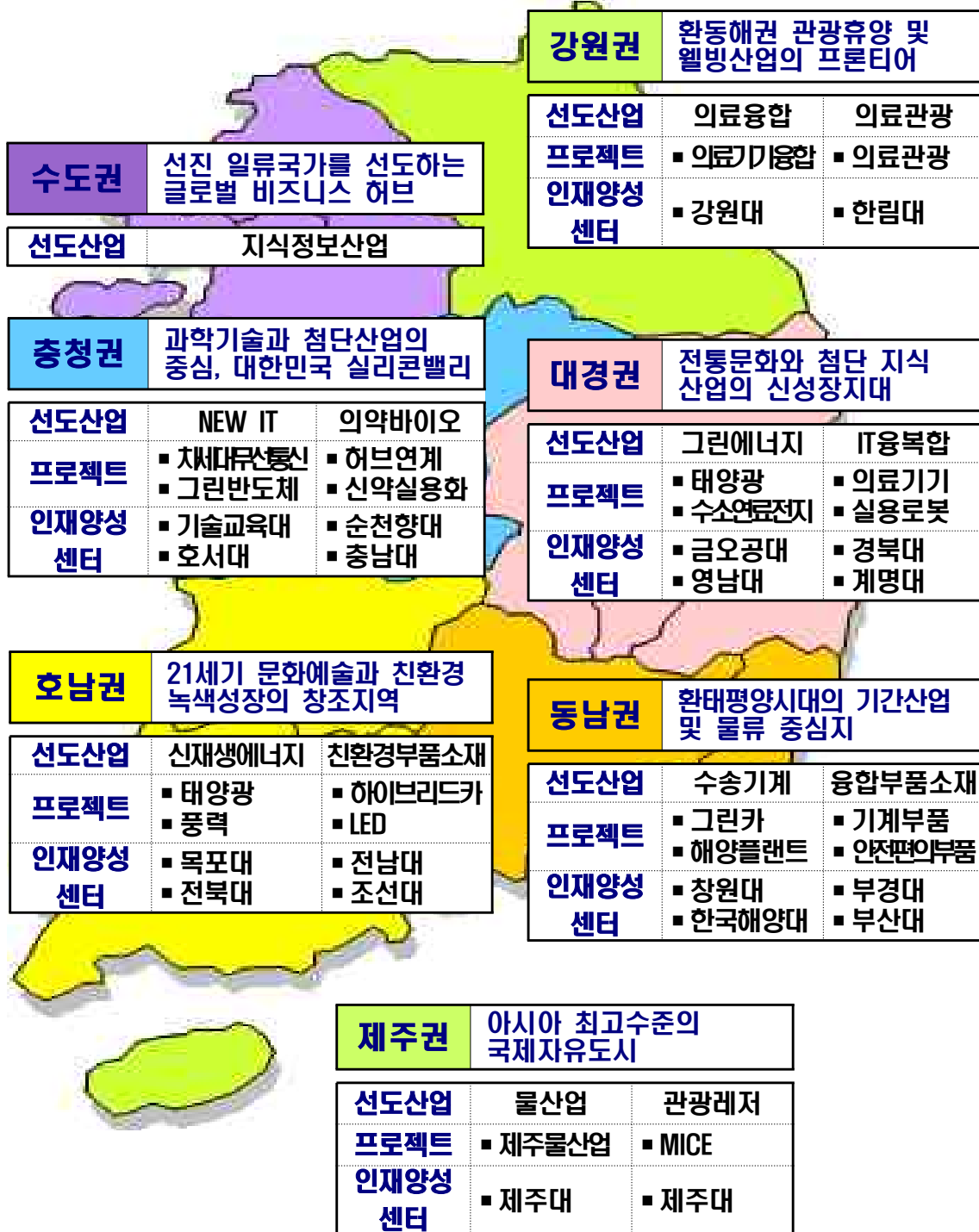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주 : 2012년은 세종시(0.25%) 제외.

< 광역경제권별 일자리증가 기여율 및 일자리 비중 (종사자기준)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기여율 = (해당지역 증가분/전체 증가분)*100.

< 별첨6 >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계획 (2011년 6월, 산업부 보도자료)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2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4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7월 3일	7월 10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64	2.54	-0.10%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2.19	101.34	-0.85¥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610	1.3609	-0.0001\$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7,068	16,915	-153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5,348	15,217	-131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60	2.59	-0.01%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08.5	1,013.4	4.9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2,011.0	2,002.8	-8.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7월 3일	7월 10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3.94	102.96	-0.98\$
	Dubai	107.99	100.38	107.88	107.72	105.67	-2.05\$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07.46	300.41	-7.05\$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6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5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6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5.4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7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0	455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5,836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381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1.7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6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3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